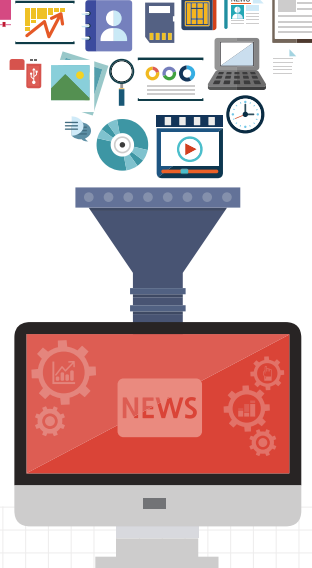


알지 않을 권리



수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한 듯하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모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다. 창졸간에 남편을 잃은 것도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큰 충격인데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각종 언론에서 그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 유족을 상대로 한 끈질긴 취재요청도 못 건딜 노릇이었지만, 인터넷 공간에 시시각각으로 남편의 인적사항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살해당한 경위 및 장소와 혈흔을 찍은 사진, 살해의 방법 등등이 세세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매일같이 새록새록 새로운 슬픔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얘기해놓았는데, 보도 때문에 아빠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써 담담하게 얘기하던 그녀는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심정이 절절히 공감되어 울컥 올라오는 울음을 참느라 갖은 애를 다 써야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사건·사고, 특히 범죄보도의 주인공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되었다. 사건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은 병원, 영안실 아니면 피해자의 집이다. 아마도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보다 생생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수법이 잔인하거나 세간의 주목을 끌 법한 사건이면 더욱 그러하고, 안 그래도 끔찍한 범죄로 인해 황망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언론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며 그러는 동안 그들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진다.

지난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이러한 범죄보도 관행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

처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나주로 우르르 몰려간 기자들은 앞 다투어 피해아동 부모의 월 수입액, 주거지 위치, 집 전경과 내부 구조, 심지어는 피해아동이 그렸던 그림일기며 피해자의 상처부위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결국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법원은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언론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은 금전적 보상이 나주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판결을 소개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이 그녀의 피명든 가슴에 터럭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나조차도 미심쩍어 주저주저하면서, 최근에 이런 판결도 있었노라고 말해주자 그녀는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그렇죠? 아무리 언론이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이 맞는 거죠?”라고 내게 확인을 한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다. 범죄보도는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수사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피해회복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의 공적 영역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영동하게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세세하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보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면서도 부당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니 그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슬픔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소 무디고 희미해지리라. 하지만 인터넷 공간 어디엔가 영원히 남아 시시각각 그들을 날카롭게 찌를 기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알권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알기 싫은 것은 알지 않을 권리 아닐까.

